

인천공항공사·한전·마사회...

‘초봉 3000’ 공공기관 채용 ‘붐물’

인천공, 일반직 채용형인턴
한전·마사회 11일까지 접수
관광공, 지역인재 신입 모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마사회 등 대기업 못지 않은 연봉으로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공공기관 채용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8일 사람이인인 신입 연봉 3000만원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모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4월10일), 한국전력공사·한국마사회(4월11일), 신용보증기금(4월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4월19일)이 상반기 대졸 신입·채용형 인턴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상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 원서접수를 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사무, 기술(전기·ICT·토목·건축·기계) 분야다. 지원자격은 토의 기준 700점 이상 등 어학 성적 보유자로, 사무 분야의 경우 학력과 전공 제한이 없다. 전형은 서류,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직무면접, 종합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직원(채용형 인턴) 채용을 10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사무(경영·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일정

- 한국전력공사** 04.04~04.11
2019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 인천국제공항공사** 04.03~04.10
2019년 상반기 일반직(채용형 인턴) 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04.04~04.19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 신용보증기금** 04.01~04.16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 신입직원 채용
- 한국마사회** 03.28~04.11
2019년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자료=사람인

행정·기록물관리·노무·장애·보훈)와 기술(건축·기계·전기·전산·토목·통신전자·장애·보훈·관계) 부문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토의 기준 800점 이상 등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다. 학력과 전공, 연령,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어학 말하기 성적 보유자, 지역인재 등은 우대한다. 채용전형은 서류, 필기, 1차면접, 2차면접,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인턴 종료 시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직(일반·기록물관리사), 요양직(일반), 전산직(전산) 분야에서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원서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성별, 학력, 나이 등 지원

제한이 없다. 행정직 일반 분야는 기준 점수 이상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해야 하는 등 분야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신입직원을 16일까지 모집한다. 채용 전형은 일반전형(수도권·비수도권), 특별전형(ICT/데이터·리스크관리·기술평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연령, 성별, 전공 등 지원 제한이 없으나, 일반전형 지원자는 최종졸업학교가 지원하는 전형의 해당 지역 소재여야 한다. 전형은 서류, 필기, 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신입사원을 11일까지 모집한다. 채용 분야는 사무직 5급(일반행정·재경·법무), 사무직 6급(사진), 영업직 5급(장외행정), 기술직 5급(시설·전산·축산·수의·승마·방송), 기술직 6급(축산지원)이다. 연령과 학력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채용은 원서접수, 필기시험, 1차 직무역량면접, 2차 최종임원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진흥직(일반·이전지역인재·IT·취업지원대상자) 분야에서 2019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은 18일까지다. 지원자격은 기준 점수 이상 외국어 성적 보유자이며, 입사에정일인 오는 6월 17일부터 교육 입소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육군총장 서욱·공군총장 원인철 프로필

<p>서욱 (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인성고 - 육사 41기 - 31보병사단 93연대장 - 연합사 작전처장 - 연합사 기참처장 - 25사단장 - 합참 작전부장 - 1군단장 -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p>육군참모총장 내정자</p> 	<p>공군참모총장 내정자</p> 	<p>원인철 (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경고 - 공사 32기 - 제19전투비행단장 -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 합참 연습훈련부장 - 공군참모처장 - 공군작전사령관 - 합참 군사지원 본부장 - 합참처장(중장)
--	--	--	---

육군총장 서욱, 공군총장 원인철 내정

軍 대장급 인사 단행

소장→중장 1명, 중장→대장 4명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5명의 전반기 장군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이들 중 4명은 중장에서 대장으로 1명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된다.

당초 육군참모총장 직에는 비(非)육사 출신이 탄생되느냐에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과 달리 육사출신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에는 서욱(57·육사41기)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58·공사32기) 합참처장(중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최병혁(56·육사 41기) 육군 참모처장(중장) ▲지상작전사

령관에는 남영신(57·학군23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중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육군참모총장에 임명 될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리적이고 역량의 범위가 넓은 게 현·예비역들의 평가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등을 거친 육군 내 최고 작전통으로 꼽힌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현행 육군작전에 밝은 인물로 육군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서 장군은 합참과 인물로 작전분야에 정통하지만, 인사분야의 업무도 수행하며 있어 역량의 폭이 넓다”면서 “합리적인 사고로 전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좀더 안정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형철 기자 captim@

“대입 수시 눈치작전, 낭패 확률 높았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 2018학년도 지원자 9만명 연구
수시 소신·하향지원, 1일차 지원자 합격률 높고 정시 낮아

대입 수시모집의 원서접수 시점이 빠를수록 합격률이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시모집의 경우 눈치작전을 하다 뒤늦게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의 합격률은 낮았다.

경희대 입학처 입학전형연구센터(황윤섭 입학처장)는 2018학년도 경희대 원서접수 지원자 9만3031명을 대상으로 대입 원서접수 시간대별 지원률과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원서접수가 빠를수록 합격률이 높았다’는 통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시모집의 경우 소신지원자나 하향 지원자가 많아 ‘원서접수가 빠를수록 합격률이 높다’라는 통념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없었다.

분석 결과,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

수 시점이 상대적으로 빨랐고, 정시모집에서는 지원서 접수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수시모집에서는 소신지원이, 정시모집에서는 막판 눈치작전이 치열해 수시와 정시 모집의 지원 경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시모집의 경우 원서접수 2일차 지원자가 43%로 가장 많았고, 3일차 이후 2시 이전, 1일차, 3일차 이후 2시 이후 순이었다. 정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3일차 이후 2시 이후 지원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4일차 이후 2시 이전, 3일차, 2일차, 1일차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다.

수시모집 지원 시간과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전형 유형과 무관하게 원서접수 시간이 빠를수록 합격률이 높았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과 실기전형에서는 원서접수 1일차 지원자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2일차, 3일차 이후 2시 이전, 3일차 이후 2시 이후 순으로 지원 시기와 합격률이 정례했다. 수시 눈치작전의 경우는 원서접수 2일차, 1일차, 3일차 이후 2시 이전, 3일차 이후 2시 이후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정시모집 지원자의 원서 접수 시기와 합격률의 상관관계는 수시모집과 다소 달랐다. 원서접수 첫째날과 마지막날 늦게 지원한 수험생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시모집 수능 가군전형 지원자 분석 결과, 4일차 이후 2시 이후와 1일차 지원자보다 2일차, 3일차, 4일차 이후 2시 이전 지원자의 합격률이 높았다.

합격자 중 실제 등록 여부를 나타내는 등록률은 원서접수 시간대별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연세대 리스트 실라즈마 노키아 회장 초청 특강

연세대학교는 경영대학이 9일 오후 4시 교내 경영관 용재홀에서 글로벌 CEO 특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리스트 실라즈마 노키아 회장(사진)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스트 실라즈마는 노키아 회장이자 핀란드 보안업체인 에프시큐어 창업자다. 2008년 노키아 이사회에 가입해 2015년 5월 이사회 의장이 됐다. 지멘스 네트워크와 알카텔루슨트 인수를



통해 노키아를 장비 사업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변신시켰다.

헬싱키공과대에서 이학석사학위, 알토대학교 기술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책 ‘트랜스포밍 노키아’를 쓰기도 했다.

김동호 세종대 교수 연구팀 전자파측정기술 논문대회서 수상

세종대학교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김동호 교수가 이끄는 안테나 및 전자파 응용 연구실 소속 남인중(전자공학과 학석사통합과정 수료), 이석민(전자공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최근 한국전자과학회 전자파측정기술 연구회가 주관한 ‘제4회 전자파측정기술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대 전자공학과 학석사통합과정 수료생 남인중(왼쪽) 씨가 최우수상 수상 후 전자파측정기술연구회 김정환 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11일부터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1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만 19

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신청자의 경우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중앙도서관 4년 연속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동국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자유기획형 분야에 대학 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선정됐

다고 8일 밝혔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인문학활용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한용수 기자